

일상 생활 속에서의 자연보호

치과대학 이 종 혼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는 1977년 창립되어 자연보호활동 및 계몽에 역점을 둔 순수민간 봉사단체입니다.

1978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전 국민에게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지시켰으며 전국의 환경공무원과 본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자연보호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8회에 걸쳐 자연실태종합학술조사, 산림내에서의 취사금지, 일사일산(一社一山) 지키기 운동, 자연정화활동, 자연보호활동 수기공모, 홍보책자 발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IUCN과 같은 국제 환경기구와의 상호 정보교환 등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운동 단체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전국에 16개 시도협의회와 231개 시·군·구 협의회, 그리고 3,785개 읍·면·동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13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과학·기계문명 발달로 인해 빠른 자연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촌 속의 우리나라도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진행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물려받은 금수강산의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을 예로 들어보면 UN은 그 중요성의 인식으로 “물의 해”를 지정하였고, 한국은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물은 총 14억 km³가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20만 km³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구촌의 물 사용량 증가와 오염지역 확대 등으로 수자원 부족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UN환경계획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 인구의 약 4억 명이, 2050년에는 인구의 절반인 40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우리 몸무게의 약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 체중의 8%가량이 혈액인데, 혈액의 약 80%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물의 소중함은 더해집니다.

물은 독성이 적은 용매로써 물질운반은 물론 해독작용,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고로 인한 출혈이나 질병으로 인한 탈수현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생명의 근원인 물을 함부로 낭비하고 오염시키는 원인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살펴보면, 전국에서 하루에 2,300만여 톤의 오폐수가 발생하는데 이중 생활오폐수가 약 1,600만 톤으로 수질 오염의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생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을 아껴 쓰고 가능한 재활용하며 샴푸와 세제의 사용을 자제하고, 농약과 비료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의 70%를 점하는 오폐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상한 우유 한 컵은 약 3,000l의 물이, 라면 국물 1컵은 약 750l의 물이, 된장국 1그릇은 약 1,400l의 물이, 식용유 한 스푼은 약 2,000l의 물이 정화용수로 필요하다는 실험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11,000톤으로 그 중 약 6,000톤이 비료나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하수에 섞여 나갑니다. 또한 유기물 산소 소비량의 100배를 사용하는 질소와 인은 비료에서 70%, 축산 사료에서 20%,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에서 10%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의 비료 사용량은 OECD 평균의 10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협의회는 지금까지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나아가 자라나는 새싹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 선생님들의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는 자기 자신의, 가족의, 국민의, 더 나아가 세계인의 생명보호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비옥한 산야, 맑은 공기,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속에서의 자연보호 실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생활화하도록 1978년 10월 5일에 선포된 자연보호헌장을 소개합니다.

(사)자연보호중앙협의회 회장 역임(2003. 1~2006. 1)

자연보호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손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 10. 5